

21세기 민간환경운동단체의 환경운동방향



박대문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안 환경운동가의 고백

최근 한 민간환경운동단체의 사무총장은 그간의 환경운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과정에서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닦아가고 있었음을, 때로 조직의 외형을 추구하고 생명을 위한다고 해놓고 생명운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을 한적도 있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아울러 활동을 위한 재정자립의 문제와 전문성의 부재에 대한 어려움과 과제를 토로 하는 것을 들었다. 참으로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환경운동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상징적이고 안타까운 목소리였다.

활동해 온 헌신적인 환경운동가들의 땀방울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 하겠다. 이제 환경문제는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차원을 넘어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민간, 기업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특히 정부와 민간환경단체는 무엇보다도 동반자요 협조자로서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함께 나갈 때 소망스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민간환경단체가 풀어야 할 21세기 환경운동의 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해 몇가지 고언과 주문을 해보고자 한다.

민간환경단체의 급증과 새로운 천년의 기대

돌아보면 지난 80년대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우리 사회의 에너지는 90년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함께 그 관심이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에 폭발적으로 쏠리게 되면서 크고 작은 많은 환경단체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최근 시민의 신문 자매기관인 시민운동정보센터가 펴낸 “한국의 민간단체총람 2000”에 따르면 전국의 민간단체는 2만개가 넘어섰고 이중 환경운동분야에서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IMF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지난 짧은 시간동안 환경운동이 다양화되고 나름대로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하는 등 급속한 고속성장과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를 이루어낸 것은 환경문제 해결의 큰 희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이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땅의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묵묵히 환경보전 운동의 확산을 위해

환경운동이 극복해야 할 과제

첫째로, “한국의 민간단체총람 2000”을 분석해보면 단체의 분포가 아직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으로의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단체수와 회원의 양적증가와 함께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분산과 단체간 상호연대를 통한 지역환경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둘째, 민간단체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재단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자원봉사와 기부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의 풍토에서 참여와 기부문화를 촉진하고 조직화 할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 스스로도 재정능력과 역량을 초과하는 상근조직의 비대 및 과대 성장이 없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단체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이슈 파이팅과 백화점식 활동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특정 분야에 대한 특화 및 전문가의 확보 등으로 도덕적인 용기와 자제력, 지식에 바탕을 둔 환경정의의 실현 노력과 실천적 모범의식의 함양 및 합리적 정책대안 집단으로서의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넷째, 국경이 없는 환경문제의 특성상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환경문제의 내부화 및 각국의 환경단체와의 상호 연대 및 정보의 공유 등 공동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와 인접해 있는 동아시아 국가 단체들과의 연대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21세기 환경운동의 방향과 전략

최근 유엔환경계획은 21세기에 인류가 처하게 될 가장 큰 위협으로 물 부족과 지구의 온난화를 지적한 바 있다. 기근과 전쟁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금세기와 달리 21세기는 바로 녹색의 결핍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새천년에는 환경운동도 달라진 위상과 기대에 상응하는 역할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환경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이념의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일차적으로 쓰레기 문제 등 현상적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생활양식 등이 자연동화적으로 변화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운동단체도 새로운 자연관과 세계관에 기초한 이념적 토대위에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관 변화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내부 역량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과감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단체간의 상호 연대와 공동 활동의 모색 및 단체간의 과감한 우호적 합병과

빅딜 등 구조조정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운동의 다변화, 중층화에 따른 전문성의 확보 및 활동영역의 특성화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활동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영역 밖에서의 비판과 견제를 넘어 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여론과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집행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문제의 특성인 외부성 효과의 수혜자 입장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으로 함께 고려함으로써 무임승차라는 비난을 벗어나 지구시민으로서의 책임과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정의의 구현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민의 참여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후원 및 활동가 등 시민 참여자의 역할 분담을 세분화하여 시민의 참여 폭을 확대해 나가고 인터넷 매체의 활용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참여방법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참여를 통해 어느정도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법인의 설립이나 기부축진을 위한 법이나 제도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 환경단체와의 연대 및 독자적 국제 환경단체로의 역할 수행 등을 통해 국제적 의제를 국내화하고 상호 연결시키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타 사회운동과의 상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연대 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에는 환경장소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의 환경운동도 그간의 환경보호 활동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환경을 가꾸고 자연을 보호하는 환경창조, 자연 존중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창조의 시대를 만들어갈 민간환경운동단체의 고귀한 땀방울은 자연과 인류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천년을 열여가는 소중한 밑거름이자 희망으로 자리할 것이다. **환경보존**